

지역 소식통

부안군-전북연구원

민선 9기 정책간담회

부안군은 지난 23일 정화영 부군수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이기인 행정지원실장을 만나 군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선 9기 전북 특별자치도정 출범을 앞두고 군의 핵심 현안사업이 도정 정책과제와 공약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화영 부군수는 이날 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 군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업들을 설명했다. 또 건의사업이 향후 전북 공약사업 및 핵심 정책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흥덕면 LPG배관망

구축사업 본격 추진

고창군이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편리하고 안전한 에너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흥덕면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초부터 약 2년간 추진 예정인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기존의 개별 용기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LPG 소형저장탱크와 매설된 공급관로를 설치해 도시가스 수준의 안정적인 가스를 공급하는 현대식 가스 공급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특히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개별 LPG 용기나 등유 보일러 대비 연료비가 약 30~40% 절감돼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이와 함께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가스 안전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에는 흥덕면 축현2리, 서이, 문화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주민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었다. 이번 설명회는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한국LPG사업관리원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세계혁명도시와 교류 박차

정읍시, 아일랜드 코크·더블린 방문 성료... 동학농민혁명 세계화 기반 다져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를 위해 아일랜드 코크시와 더블린 등 혁명도시를 방문해 우호도시 협약 추진과 학술 교류 확대를 합의하고 지난 20일 귀국했다.

이번 일정은 지난해부터 기획한 세계혁명도시 간 국제 교류 사업의 하나로 코크시의 초청을 받아 이뤄졌다. 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정읍이 주도하는 연대를 확장하는 데 힘을 쏟았다.

정읍과 아일랜드의 교류는 지난 2023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당시 디어드레 포드 코크시장과 도서관장을 비롯해 달시 로너건 더블린 부시장과 도서관장이 정읍을 찾았다. 이어 2024년에는 키톤 맥카시 코크시장과 다니엘 브린 코크박물관장이 세계혁명도시 연대를 위해 시를 방문한 바 있다.

시 대표단은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민족 항쟁 역사 도시인 코크시장을 방문해 펼칠 드니히 시장과 공식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도시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을 위한 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아울러 2027년 정읍에서 열리는 '제5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공식 초대장을 전달하며 국제 협력망(네트워크)을 한층 강화했다.

역사 교류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결실을 보였다. 대표단은 다니엘 브린



코크박물관장과 만나 지난 2024년 맺은 시립박물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후속 프로그램을 구체화했다. 두 기관은 유물과 기록물 교환 전시를 추진하고 공동 학술연구를 증진하기로 합의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 교두보를 마련했다.

더블린 일정에서는 브랜든 킬린 시립도서관장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서 시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가치를 소개하고 교류 방안을 긴밀히 협의했다. 이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켈스의 서(Book of Kells)'를 소장한 트리니티 대학교(Trinity College)를 찾았다. 이곳에서 기록유산의 보존과 전시 기법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한 문화관

광 지원과 우수 사례를 정읍시 정책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아일랜드 문화 학술 기관들로부터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홍보 지원 사업으로 제작할 예정인 다국어 홍보책자 교류도 약속받았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의 평등과 자주 정신을 유럽 지식인 사회와 시민들에게 깊이 각인시킬 예정이다.

시는 이번 방문 성과를 토대로 코크시와의 우호도시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세계혁명도시 협력망을 확대하고 세계기록유산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후속 사업을 차질 없이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옹동우체국 출장소로 전환

정읍시, 전북지방우정청 대상 적극행정... 옹동우체국 폐국 막아

정읍 옹동면 주민 711명의 서명으로 시작된 우체국 폐국 반대 민원을 정읍시가 전북지방우정청과 협의해 4개월 만에 해결하고 해당 시설을 출장소로 전환 운영하기로 했다.

집단지행들은 지난 3월 18일 옹동우체국 폐국 결정이 알려지면서 시작했다. 옹동면 이장협의회(대표 김영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711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정읍시가 발 빠르게 나섰다. 시는 전북지방우정청을 직접 방문해 지역의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양 기관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적극 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정읍시와 국민권익위원회, 전북지방우정청 3개 기관이 타협점을 찾아 기존 우체국의 명맥을 이어가되



운영 방식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옹동면 사업 현장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집단 고충 민원 현장 조정 회의가 열렸다. 우체국은 오는 7월 6일 출장소 개국식(옹동면 행정복지센터 부지)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꼼꼼히 살피고 성실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로컬푸드직매장, 개장 5주년 행사

고객감사 전 품목 10% 할인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부안로컬푸드직매장 개장 5주년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11일간 고객감사 특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1년 개장 이후 꾸준히 부안로컬푸드를 이용해 준 소비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부안로컬푸드직매장 본점(부안을 매창로 214)과 격포점(변산면 격포중앙길 28-10)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특판행사는 이전 행사와 다르게 농·축·수산물과 지역가공품, 공산품 등 전 품목을 대상으로 10% 할인 판매를 실시하며 5주년이 되는 당일 7월 1일부터 2일까지는 3만원 이상 구매하는 회원 중 선착순 800명에



게는 기념품도 지급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부안로컬푸드직매장은 현재 6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1만여명의 소비자 회원을 확보해 지역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반찬류, 우리밀 가공품 등 다양한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앞장 서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와 홍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설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디에스시동탄 신활력산단 분양대금 납부 완료

산업용지 소유권 이전 완료·본격 사업 추진... 산단 분양률 80%대

고창군이 (주)디에스시동탄의 고창신 활력산업단지 분양대금 잔금 납부 완료에 따라 산업용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유권 이전 대상 부지는 고창신활력산업단지 A10블럭 부지 5만6637.1㎡(약 1만7132평) 규모다.

(주)디에스시동탄은 이곳에 총 951억 원을 투자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제

조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투자금액은 토지매입 51억원, 공장건설 300억원, 기계장비 600억원으로 구성되며, 향후 75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주)디에스시동탄이 입주하면서 투자협약 체결 기업 기준 산업단지 분양률은 기존 70.2%에서 79.4%까지 상승했다.

. 공장 신축과 설비투자 과정에서 지역 건설·장비·자재 수요가 발생하

고, 공장 가동 이후에는 신규고용, 지역 내 소비 확대, 지방세수 증대 등 다양한 효과가 예상된다.

잔금 납부로 토지매입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기업의 공장 신축과 생산설비 구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디에스시동탄은 2026년 7월부터 공장 신축과 기계설비 구축을 추진하고, 10월 공장등록 및 사업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8년 이후에는 연간 약 975억원 규모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26 '예술누림' 선정... 국비 1400만원 확보

정읍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2026 예술누림' 사업에 선정돼 국비 1400만원을 확보하고, 지역 청소년을 위한 융합미술과 실용음악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에 선정된 '예술누림'은 더 많

은 시민이 예술 활동을 경험하도록 돕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다.

여름방학 기간인 7월에서 8월 사이에는 '그루브 스타트' 과정이 열린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2주에 걸쳐 총 40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읍시청소년방과후아

카데미는 진로 체험, 문화예술 활동, 체험 학습, 전문 기관 연계 과정, 창의 융합 활동, 생활과 학습 지원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안내나 참여 문의는 정읍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63-533-7059)로 연락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안전한 학교급식 조성 총력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이 식중독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방 중심의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지원청은 지난 3월부터 오는 7월까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위생·안전 점검과 검사, 연수를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3월에는 조리용구(갈·도마·식판 등)를 대상으로 식중독균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미생물 검사를 실시해 관내 모든 학교가 '적합' 판정을 받

았다. 이어 4~5월에는 관내 조리학교 22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급식 전 과정을 점검했으며, 미비점을 개선 지도했다.

6월에는 식재료 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품업체 대표자 대상 '식재료 위생관리 및 납품 준수사항' 연수를 진행하고 한우 유전자 검사를 병행했다. 7월에는 학교급식 조리실무사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